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영향 요인

공혜원¹ · 이정교¹ · 서한울¹ · 이소윤¹ · 김선우¹ · 박예니¹ · 이은숙¹ · 최정윤¹ · 김여진²

¹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 ²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Affect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Hye Won, Gong¹ · Jeong Gyo, Lee¹ · Han Ul, Seo¹ · So Yun, Lee¹

Seon U, Kim¹ · Ye Ni, Park¹ · Eun Suk, Lee¹ · Jeong Yun, Choi¹ · Yeo Jin, Kim²

¹Student, Depar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²Depar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and satisfaction in major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thods** :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162 nursing student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May 22, 2017 to May 30, 2017. The SPSS/WIN 20.0 program was used for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The average score fo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atisfaction in major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were 2.67, 3.88 and 3.33. There were positive corrections amo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atisfaction in major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24.1%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predictively described($F = 15.15, p < .001$) in the order of satisfaction in major($\beta = .35, p < .001$), school grades($B + \beta = .54, p = .021$, $A \beta = .51, p = .011$), and academic year($\beta = .23, p = .002$). **Conclusion** :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nursing students in their career behavior in a more positive way, nursing educational institutions will be required to make efforts to develop and enhance a curriculum covering a systematic career education and major, and also to map out a plan to identify its long-term effect.

Key words : Nursing studen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atisfaction in major,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진로준비행동이란 개인이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정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행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형태의 차원을 의미한다[1]. 간호대학생은 전문직 간호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경험해야

하는 간호교육과정을 통하여 대상자인 인간의 다양한 건강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간호지식을 배우고 간호사로서의 소양을 기르게 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교육을 통하여 총체적인 간호지식과 실무를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과 기본간호기술을 실제에 적용해 보고, 문제해결, 의사결정 및 조직과 시간관리 능력을 익힐 수 있어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기본 능력을 갖추게 된다[2].

현재 간호사는 병원, 가정, 산업장, 진료소, 보건소, 학교, 정부기관, 보험회사, 보건의료시설, 지역사회 등 다양한 업무현장에서 병원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행정가, 교육자, 보건직공무원, 개업 간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3]. 간호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간호대학생들은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통하여 진로를 결정하기 보다는 졸업 후 주로 병원에 취업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 수집은 기관의 간호사 채용 정보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간호대학생 자신과 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진로준비를 통한 취업 기관 결정은 미흡한 수준이다[4].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자기개발, 올바른 취업 준비, 직장 선택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 확고한 직업의식,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가진 전문인으로서의 의식과 자질 개발 등이 포함된다[4]. 진로준비행동은 간호대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취업준비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키며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업무현장에서의 현실 적응력이 향상된다[5]. 또한 진로준비 시기가 빠를수록 자신이 원하는 곳에 취업할 확률이 높고, 진로준비가 부족할 시에는 취업 후 사회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6].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진로에 대한 탐색과 준비, 성공적인 취업과 그 후 조직에 잘 적응하여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진로준비행동은 매우 중요하다[7,8].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될 수 있는 변인들을 파악하여 간호교육과정 안에서 학습과 훈련을 통해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과 간호전문

직관,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등의 관련 변수들의 관계를 각각 살펴보는 연구[9, 10, 11]가 주로 시도되었고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연구[11]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으로 전공만족도의 일부 하부영역의 영향이 연구되었으며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효과적인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를 위한 진로지도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를 파악하고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J도에 소재하는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

하고 참여할 것을 동의한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180명을 편의표집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최소 표본의 수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요인의 수를 8개로 하였을 때 160명으로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1)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Kim과 Kim[1]이 개발한 도구로 총 16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Kim[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미국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를 수정·보완하여 Kim과 Ha[12]가 작성한 34개 학과만족도구 중 Lee[13]가 전공만족 관련된 18문항을 추출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공분야에 대한 일반적 관심을 나타내는 ‘일반만족’ 6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나타내는 ‘인식만족’ 6문항, 교과내용에 대한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3문항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3)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는 Cho와 Kang[14]이 개발한 임상실습만족도 측정도구를 Lee 등[15]이 수정·보완한 31개 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실

습교과 3문항, 실습내용 6문항, 실습지도 9문항, 실습환경 7문항, 실습시간 3문항, 실습평가 3문항의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5월 22일부터 2017년 5월 30일까지로 J도 소재 간호학과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해당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은 후, 공동연구자(간호대학생)가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및 방법, 자율적 참여, 비밀보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부한 설문지 총 180부 중 165부가 회수되었고(91.6%의 회수율), 이 중 부적절한 응답을 한 설문지 3부를 제외하고 총 162부가 최종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PSS WIN/PC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 1)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일반적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고,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3)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학년은 3학년 44.4%,

4학년 55.6%이었고, 평균 연령 23.60 ± 5.11 세였다. 대상자의 52.5%가 종교가 있었으며 그 중 기독교가 27.8%로 가장 많았다. 건강상태는 95.1%의 대상자가 보통 이상의 건강수준이었으며,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곳은 병원 취업이 82.7%로 가장 많았고, 간호학과의 지원 동기는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서 33.3%, 부모님이나 주위의 권유 23.5%, 취업률이 높아서 19.1%, 전문직이라서 16.1% 순이었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atisfaction in Major,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162)

Characteristic	Categories	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atisfaction in Major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Academic year	3	72(44.40)	2.56±0.46	-3.05	3.86±0.42	-0.37	3.34±0.41	0.28
	4	90(55.60)	2.77±0.41	(.003)	3.86±0.42	(.709)	3.32±0.36	(.779)
Religion	Christianity ^a	45(27.80)	2.76±0.46		3.88±0.44		3.30±0.38	
	Won Buddhism ^b	13(8.00)	2.84±0.35		3.91±0.51		3.34±0.33	
	Buddhism ^c	11(6.80)	2.38±0.44	2.64 (.056)	3.95±0.47	0.12 (.97)	3.46±0.53	1.82 (.128)
	Catholicism ^d	16(9.90)	2.76±0.51		3.88±0.55		3.54±0.46	
	No ^e	77(47.50)	2.62±0.41		3.86±0.42		3.29±0.34	
Health condition	Bad ^a	8(4.90)	2.33±0.27		3.66±0.45		3.08±0.34	
	Normal ^b	53(32.80)	2.69±0.36	2.40 (.070)	3.77±0.42	3.42 (.019)	3.18±0.32	9.48 (<.001)
	Healthy ^c	69(42.50)	2.65±0.43		3.86±0.44		3.32±0.37	
	Very healthy ^d	32(19.80)	2.79±0.59		4.08±0.45		3.60±0.36	
Personal relationship	Very bad ^a	1(0.60)	2.27		3.17		3.03	
	Bad ^b	1(0.60)	2.25		3.16		3.11	
	Normal ^c	33(20.40)	2.60±0.36	1.63 (.170)	3.79±0.42	3.65 (.007)	3.22±0.36	5.50 (<.001)
	Healthy ^d	93(57.40)	2.65±0.41		3.81±0.45		3.28±0.33	
	Very healthy ^e	34(21.00)	2.83±0.58		4.12±0.40		3.58±0.43	
Reason for application to nursing department	Matched with the high school grades ^a	7(4.30)	2.66±0.46		3.80±0.44		3.28±0.21	
	On the advice of parents or others ^b	38(23.50)	2.63±0.38		3.83±0.45		3.30±0.43	
	Beneficial to find a job and overseas ^c	31(19.10)	2.55±0.47	1.40 (.227)	3.72±0.46	5.30 (<.001)	3.31±0.34	1.14 (.341)
	Aptitude & interest ^d	54(33.30)	2.78±0.42		4.08±0.34		3.38±0.39	
	Professional job ^e	26(16.10)	2.63±0.44		3.65±0.48		3.24±0.31	
	Other ^f	6(3.70)	2.84±0.73		4.16±0.37		3.60±0.46	

Characteristic	Categories	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atisfaction in Major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Major satisfaction	Unsatisfactory ^a	5(3.10)	2.52±0.61		3.20±0.63			3.23±0.36		
	Normal ^b	57(35.20)	2.57±0.42	2.66	3.67±0.42	21.02	d>c>	3.18±0.36	10.73	d>c>
	Satisfactory ^c	84(51.80)	2.71±0.40	(.050)	3.97±0.33	(<.001)	b>a	3.37±0.34	(<.001)	a>b
	Very satisfactory ^d	16(9.90)	2.89±0.63		4.37±0.40			3.73±0.38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Very unsatisfactory ^a	4(2.50)	3.01±0.40		3.65±0.36			2.94±0.35		
	Unsatisfactory ^b	14(8.60)	2.62±0.37	2.10	3.60±0.45	7.50	e>d>	3.11±0.25	11.13	e>d>c
	Normal ^c	67(41.40)	2.58±0.41	(.083)	3.75±0.46	(<.001)	c>a,b	3.23±0.32	(<.001)	>b>a
	Satisfactory ^d	68(41.90)	2.76±0.43		4.01±0.34			3.43±0.36		
	Very satisfactory ^e	9(5.60)	2.68±0.73		4.30±0.50			4.88±0.41		
The first course of hope after graduation	Hospital	134(82.70)	2.68±0.45		3.88±0.45			3.34±0.38		
	School nurse	9(5.60)	2.72±0.29		3.82±0.36			3.19±0.38		
	Industrial nurse	5(3.10)	2.45±0.42	0.40	3.83±0.41	0.47		3.23±0.40	1.19	
	Public nurse officer	8(4.90)	2.71±0.32	(.805)	4.06±0.29	(.755)		3.20±0.27	(.317)	
	Other	6(3.70)	2.60±0.70		3.75±0.67			3.56±0.52		
School grades	Top rank (Average grade A+) ^a	2(1.20)	2.75±0		4.13±0.39			3.37±0.11		
	Middle-top rank (Average grade A) ^b	36(22.30)	2.77±0.44		3.85±0.37			3.23±0.36		
	Middle rank (Average grade B+) ^c	81(50.00)	2.72±0.42	2.71	3.85±0.45	1.37	a,b,c>d>e	3.34±0.39	2.01	
	Middle-low rank (Average grade B) ^d	39(19.00)	2.54±0.47	(.032)	3.98±0.48	(.247)		3.44±0.38	(.095)	
	Low rank (Average grade ≤C) ^e	4(7.50)	2.20±0.33		3.52±0.57			3.06±0.20		
The standard of average household life	Difficult to live without other help	3(1.90)	2.85±0.72		4.11±0.36			3.52±0.59		
	Live on shortage	14(8.60)	2.57±0.44		3.72±0.40			3.24±0.30		
	Live on average	101(62.30)	2.64±0.45	1.06	3.84±0.43	1.42		3.32±0.37	0.80	
	Free from leisure	30(18.50)	2.81±0.32	(.379)	3.99±0.43	(.230)		3.42±0.42	(.525)	
	Enough free from leisure	14(8.60)	2.68±0.59		3.98±0.59			3.30±0.42		
Current dwelling type	Own house	64(39.50)	2.71±0.41		3.86±0.39			3.29±0.36		
	Boarding house	2(1.20)	2.37±0.53		4.13±0.03			3.54±0.13		
	Board-oneself	75(46.30)	2.68±0.46		3.92±0.48			3.34±0.41		
	Board-with siblings	4(2.50)	2.57±0.50	1.05	3.63±0.27	0.83		3.53±0.42	0.59	
	Board-with friend, colleague	13(8.00)	2.47±0.48	(.389)	3.72±0.59	(.530)		3.39±0.28	(.708)	
	Board-with relative	4(2.50)	2.89±0.52		3.86±0.28			3.40±0.56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학년($t=-3.05, p=.003$), 학교성적($F=2.71, p=.03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3학년에 비해 4학년이,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종교, 건강상태, 대인관계, 간호학과 지원동기, 임상실습만족도, 졸업 후 첫 희망진로, 가정의 생활정도, 현재 거주지 형태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건강상태($F=3.42, p=.019$), 대인관계($F=3.65, p=.007$), 간호학과 지원동기($F=5.30, p<.001$), 임상실습만족도($F=7.50,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건강상태가 보통이나 건강한 경우에 비해 매우 건강한 경우가, 대인관계가 매우 건강한 경우가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간호학과 지원동기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경우 적성과 흥미라고 대답한 경우가, 임상실습에 매우 만족한 경우가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학년, 종교, 졸업 후 첫 희망진로, 학교성적, 가정의 생활정도, 현재 거주지 형태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는 건강상태($F=9.48, p<.001$), 대인관계($F=5.50, p<.001$), 전공만족도($F=10.73, p<.001$), 임상실습만족도($F=11.13,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에 비해 매우 건강한 경우가, 대인관계가 매우 건강한 경우가, 전공에 매우 만족한 경우가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학년, 종교, 간호학과 지원동기, 졸업 후 첫 희망진로, 학교성적, 가정의 생활정도, 현재 거주지 형태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1).

3.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평균은 2.67점, 전공만족도는 3.88점, 임상실습만족도는 3.33점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의 하위영역별 점수는 인식만족이 4.1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만족 3.84점, 관계만족 3.66점, 교과만족 3.57점 순이었다. 임상실습만족도의 하위영역별 점수는 실습교과에 대한 만족이 3.65점으로 가장 높았고 실습내용 3.49점, 실습평가 3.44점, 실습환경 3.34점, 실습지도 3.22점, 실습시간 2.94점 순이었다(Table 2).

Table 2. Mean Scores fo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atisfaction in Major,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N=162$)

Variables	Mean \pm S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67 \pm 0.44
Satisfaction in Major	3.88 \pm 0.45
General satisfaction	3.84 \pm 0.60
Perception satisfaction	4.19 \pm 0.53
Subject Satisfaction	3.57 \pm 0.58
Relationship satisfaction	3.66 \pm 0.68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3.33 \pm 0.38
Clinical practice curriculum	3.65 \pm 0.53
Clinical practice content	3.49 \pm 0.39
Clinical practice instruction	3.22 \pm 0.57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	3.34 \pm 0.51
Clinical practice time	2.94 \pm 0.83
Clinical practice evaluation	3.44 \pm 0.61

4.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은 전공만족도($r=.35,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전공만족도는 임상실습만족도($r=.48,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Table 3. Correlation fo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atisfaction in Major,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N=162$)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p)$	Satisfaction in Major $r(p)$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r(p)$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atisfaction in Major	.35(<.001)		
Clinical Practice	.14(.071)	.48(<.001)	

Table 4.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N=162$)

Variables	B	β	t	p
Satisfaction in Major	.35	.35	4.92	<.001
Academic year(4)*	.20	.23	3.12	.002
School Grades(A+) [†]	.33	.08	0.96	.340
School Grades(A) [†]	.55	.51	2.58	.011
School Grades(B+) [†]	.49	.54	2.34	.021
School Grades(B) [†]	.30	.29	1.40	.163

 $R^2 = .24$, $F=15.15$, $p<.001$

* Dummy Reference : Academic year(3)

[†] Dummy Reference : School Grades($\leq C$)

높았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았다(Table 3).

5.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모든 변수가 공차한계(Tolerance) .997 이상,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1.003 이하, 상태지수(condition index; CI) 25.159 이하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 학교성적을 포함시키고, 진로준비행동과 상관관계를 보인 전공만족도를 포함하였다. 학년과 학교성적은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더미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출된 진로준비행동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15.15$, $p<.001$) 진로준비행동의 영향요인은 전공만족도, 학년, 학교성적으로 이들 변수는 진로준비행동을 24.1%

예측 설명하였다.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영향을 준 예측요인은 학교성적($B + \beta = .54$, $p = .021$, $A \beta = .51$, $p = .011$)이었으며, 다음으로 전공만족도($\beta = .35$, $p < .001$), 학년($\beta = .23$, $p = .002$) 순이었다(Table 4).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향상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은 4점 만점에 평균 2.67점, 총점 42.72점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비교해보면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Jang과 Moon[11]의 연구에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평균 2.51점, 총점 40.16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았다. 반면에 3학년과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Moon과 Kim[16]에서는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평균 2.6점, 총점 41.5점,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Ko와 Kim[9]에서는 평균 2.67점, 총점 42.66점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여 본 연구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중간 정도로 높지 않는데 이는 대부분의 간호대학생이 입학과 동시에 간호사라는 직업이 이미 정해진 것으로 간주하고,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사가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에는 병원에 취업하는 정형화된 코스를 따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16].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보다 다양한 영역의 진로탐색과 진로준비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학년,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4학년이 3학년보다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에 적극적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나타내는 선행연구[16]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점 B+ 이상의 학생이 평점 B 이하의 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졸업예정자의 80% 이상이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9] 상위권 성적의 학생이 성적이 낮은 학생보다 진로준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대학병원 수준의 상급 종합병원의 취업률이 높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8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이었으며,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Jeong과 Shin[17]에서는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의 전공만족도가 3.79점, Jang과 Moon[11]에서는 3.89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공만족도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인식만족이 4.19점으로 매우 높았고, 다음은 일반만족, 관계만족, 교과만족 순으로 전체 하위영역 점수가 3.57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간호대학생이 비교적 높은 전공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타학문을 전공한 대학생과 비교하여 졸업 후 간호사 국가면허를 취득하여 직업

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병원, 보건소, 학교, 산업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지원동기, 실습만족도, 학업성적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았으며 Jeong과 Shin[17]에서 입학동기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차이를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간호학과 관련한 자신의 적성을 찾고 간호학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 및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3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으며 이는 Yu[18]의 3.29점, Lee와 Ha[19]의 3.54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임상실습만족도의 하위영역별 점수는 실습교과에 대한 만족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실습내용, 실습평가에 대한 만족 순이었다. 반면에 실습시간,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는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경우가 나쁜 경우보다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대인관계가 매우 좋을수록, 전공에 매우 만족할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았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하여 기본간호술을 비롯한 간호실무를 직·간접적으로 학습하고 간호지식과 간호실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 및 의사소통 능력을 익히게 되는데[2] 나쁜 건강상태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 집중하고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고 개인뿐만 아니라 함께 실습하는 팀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팀원들 간의 대인관계는 임상실습 및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간호문제를 해결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대인관계 능력은 간호사에게 꼭 필요한 역량으로 임상실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임상실습만족도는 전공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전

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진로준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만족스러운 실습 경험을 얻게 되며, 전공만족도는 자신이 선택한 분야가 직업으로서 만족스럽다는 긍정적인 인식과 감정[20]이므로 이론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21].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전공만족도, 학년, 학업성적으로 이들 변수의 진로준비행동 설명력은 24.1%였으며,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준 예측요인은 학업성적, 전공만족도, 학년 순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예측요인은 학업성적(B+)이었으며, 학업성적이 C 이하인 학생보다 B+인 학생이, C 이하인 학생보다 A인 학생이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학에 대한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며,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적과 학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확인하고,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의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및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을 파악하고 진로준비행동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3학년과 4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공만족도, 학업성적, 학년으로 이들 변수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24.1%였으며,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수는 학업성적이었다. 즉,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학년을 고려한 체계적인 진로준비교육과 더불어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며, 장기적으로 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각 학년에 따른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을 파악하는 연구, 전공만족도와 학업수준 이외에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Kim BW, Kim KH.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997;9(1): 311-333.
2. Kown IS, Seo YM. Nursing students' needs for clinical nursing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2;18(1): 25-33.
3. Jung MS, Park KO, KO MH, Kim DH, Kim SY, Kim YK et al. Professional nursing. 3rd ed. Seoul: Hyunmoon; 2018. p.270-276.
4. Moon IO, Lee GW.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0;16(1): 83-91.
5. Lee SG, Lee JK. The differenc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

- first job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depending on employment goal.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2008;21(3):1-25.
 6. Choi JI, Han TY, Lee YH.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of physical education major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014;23(5):113-126.
 7. Song HS, Lim SH.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on carrier preparation behavior in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17(4): 21-36.
 8. Kim MA, Lim JY, Kim SY, Kim EJ, Lee JE, Ko YK.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4;13(4): 383-391.
 9. Ko YJ, Kim IK.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1): 62-71.
 10. Seong JA, Bang SY, Kim SY.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Holistic Health Science. 2012;2(2):29-38.
 11. Jang TJ, Moon MK.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6; 22(4):344-352.
 12. Kim KH, Ha HS.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0;1(1):7-20.
 13. Lee DJ.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Yousei University; 2004.
 14. Cho KJ, Kang HS.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84;47(1):63-74.
 15. Lee SH, Kim SY, Kim JA.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4;10(2):219-231.
 16. Moon MK, Kim S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2017;42(2):162-169.
 17. Jeong MH, Shin MA.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6;12(2):170-177.
 18. Yu HS. Relationship amo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5;17(2):1129-1144.
 19. Lee MS, Ha YO.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12): 8738-8744.
 20. Koo HY, Im HS.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etwee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2013;13(1):311-321.
 21. Yang NY, Moon SY.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1;17(2):216-225.
-